

국어 교육과 발음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들어가며

생물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를 거듭한다. 우리의 눈에 움직임이 없거나 변화 없이 고정된 듯 보이는 것들도 실상 그 속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거침없는 움직임을 지향하며 변화해 간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만들어진 얼음은 봄이 되면 그대로 얼음으로 남아 있는 듯 보이지만 얼음 속에서는 벌써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바쁘다.

언어 또한 생물과 같아서 현재 상태에서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없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언어 중 문자로 이루어진 표기는 고정되어 있어 표기에서는 변화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음성 또는 발음은 이미 변화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닭’의 표기와 표준 발음, 그리고 현실 발음은 [표 1]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닭’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한다면 ‘닭#, 닭이, 닭을, 닭에, 닭으로’처럼 될 것이고, 표준 발음으로는 [닥], [달기], [달굼], [달게], [달그로]가 된다. 하지만 표기 속에 감추어진 현실 발음을 고려한다면 [닥#,

[표 1] '닭'의 표기와 발음

조사 표기, 발음	___#1)	-이	-을	-에	-으로
실제 표기	닭	닭이	닭을	닭에	닭으로
표준 발음	닥	달기	달글	달게	달그로
현실 발음	닥	다기	다글	다게	다그로

[다기], [다글], [다게], [다그로]처럼 될 것이다. 즉 표기상으로는 기본형이 '닭'이지만 현실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형은 이미 '닥'이라고 해야 한다. 드러난 표기에서는 기본형이 '닭'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문자로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표기 속에 감추어진 발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기본형은 '닥'으로 변화가 이미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드러난 표기의 현실과 감추어진 발음의 현실이 갖는 괴리는 곧바로 국어 교육, 특히 발음 교육에서 어려움을 동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글은 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표기와 표준 발음, 그리고 현실 발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대안을 발음 교육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표준국어대사전》과 <표준 발음법>

국어 교육의 현장에서는 현실 발음보다는 표준 발음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 발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 필요가

1) #은 조사 결합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환경임을 말한다.

있다. 언중이 발음을 확인하고자 할 때 먼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표준국어대사전》이나 〈표준 발음법〉이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정보나 〈표준 발음법〉의 규정이 표준 발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정보가 미세한 음운론적인 환경까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언중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뿐더러, 〈표준 발음법〉의 규정 또한 현장 교사들이나 일반인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다.

언어 사용자들이 발음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표준국어대사전》이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정보가 과연 수요자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의 발음 정보와 관련하여 먼저 표제어 ‘맑다’를 찾으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맑다01 [막때]

활용 정보: 맑아, 맑으니, 맑고말찌, 맑지막찌)

국어의 한 특징으로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활용 정보와 발음 정보가 너무 간략하게 제시된 듯하다. 즉 ‘맑다, 맑고, 맑지’에 대한 활용 정보와 발음 정보만 제시되어 있어서, ‘맑니, 맑소’와 같이 자음으로 끝나는 어미가 결합한 활용 정보와 발음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의 부족한 발음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표준 발음 사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표준 발음법〉은 전반적인 체제와 원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구체적이고 미세한 발음 정보들은 ‘표준 발음 사전’에서 제시하

여 준다면 언어 사용자들의 발음 정보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표준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표준 발음법>의 규정에 대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표준 발음법>에 대한 규정을 알고는 있다.²⁾ 그러나 규정 자체가 사례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규정에 있는 표준 발음 사례가 체계적이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몇 가지 있다. 겹받침의 발음, ‘명사+ 호격 조사’의 발음, 음의 길이, 단모음 ‘니, 귀’ 발음 등이 그것이다.

3. 겹받침의 발음

겹받침과 관련된 표준 발음은 특히 논란거리가 된다. 겹받침의 발음은 지역 방언마다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표준 발음이 현실 발음과는 많은 괴리를 보인다.

제11항 겹받침 ‘리, 피, 뽀’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비]으로 발음한다.

닭[다] 흙[래]흑[래] 맑[대]막[때] 늪[지]늪[제] 삶[삼:]

끓[대]점: 때 읊[괴]읍[피] 읊[대]읍[때]

2)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 규정이 있는지 모르거나, 알아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리]로 발음한다.

맑게말게 물고물꼬 얹겨내얼이겨내

이 규정 중 ‘ㄹ’만 고려한다면 용언의 어간 끝소리가 ‘ㄹ’일 때 어미의 두음 ‘ㄱ’ 앞에서 ‘ㄱ’이 탈락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ㄹ’ 중 ‘ㄹ’이 탈락한다. 이 규정을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그런데 [표 2]에 제시된 것과는 달리 현실 발음에서 보이는 ‘ㄹ’의 탈락 현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다.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겹받침이면 뒤따라오는 어미의 두음에 따라 탈락하는 자음이 다르다는 규정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다. 국어에서 어간 끝소리가 겹받침일 때 뒤따라오는 자음이 오는 경우 하나의 자음이 떨어진다는 규칙(자음군 단순화 규칙)이 있지만, 왜 ‘맑고’의 경우에만 탈락하는 자음이 ‘ㄱ’인지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기 쉽지 않다. 물론 현실 발음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궁색하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표 2]에서 제시된 표준 발음이 모두 현실 발음이라고 언중이 인식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표준 발음이 현실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식의 학습 외에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이 달리 없는 점도 겹받침과 관련된 표준 발음이 안고 있는 숙제로 보인다.

[표 2] 겹받침 ‘ㄹ’의 발음

범주	체언					용언				
	닭					맑				
단어	닭#	닭과	닭도	닭만	닭조차	맑고	맑다	맑지	맑니	맑소
표준 발음	닥	닥과	닥또	당만	닥쯔차	말꼬	막따	막찌	망니	막쏘
탈락 자음	ㄹ	ㄹ	ㄹ	ㄹ	ㄹ	ㄱ	ㄹ	ㄹ	ㄹ	ㄹ

표준 발음이 현실 발음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교육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겹받침 중 탈락하는 자음을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는 방법, 아니면 어느 쪽이 탈락하든 상관없이 둘 다 인정하여 복수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겹받침 중 탈락하는 자음을 어느 한쪽 방향으로 통일시키는 방안이나 어느 자음이 탈락하든 둘 다 인정하는 방안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의미 전달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며 의사소통에도 큰 불편이 없어 보인다.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학생들에게 겹받침 중 탈락하는 자음을 어느 한쪽 방향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가르치기 쉬울 수 있겠지만, 방언에 따라 탈락하는 자음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든 현실 발음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 발음과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복수 표준 발음을 허용하는 방향일 것이다.

4. ‘명사 + 호격 조사’의 발음

표준 발음과 관련하여 현실 발음과 괴리를 많이 보여서 발음 교육을 어렵게 하는 사례 중에는 ‘명사 + 호격 조사’의 결합을 들 수 있다. 요즘에는 고유어로 된 이름³⁾ 흔히 볼 수 있는데 ‘풀잎, 한빛’ 등이 그 예이

3) ‘김풀잎’이나 ‘이한빛’과 같은 인명을 흔히 ‘한글 이름’이라고 한다. ‘한글 이름’은 한글로 표기된 이름인데, ‘풀잎, 한빛, 로버트’ 모두 한글로 표기되었으므로 한글 이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중은 한글 이름이라고 했을 때 ‘풀잎, 한빛’ 등을 떠올리지 ‘로버트’를 떠올리지는 않는다. 그 말은 언중이 인식하는 ‘한글 이름’은 결국 ‘고유어로 된 이름’을 의미하므로 ‘한글 이름’이라는 잘못된 표현보다는 ‘고유어 이름’이라는 적절한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

다. 교육 현장에서 ‘명사+ 호격 조사’의 발음을 지도할 때, 어간 끝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뒤 음절로 넘어가는 연음 현상 때문에 ‘풀잎, 한빛’이라는 이름은 표준 발음으로 ‘풀잎애[풀리파]’ 또는 ‘한빛애[한비차]’라고 지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발음하면 학습자들이 굉장히 어색해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를 종종 접하곤 한다. 학습자들은 오히려 ‘풀잎애[풀리바]’나 ‘한빛애[한비대]’가 더 자연스럽다는 견해를 보이는데, 이러한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는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괴리를 그대로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일반화하면 거센소리인 ‘ㄱ, ㅌ, ㅍ, ㅊ’ 등이 어간 끝소리로 와서 호격 조사와 결합할 때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에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 이름 외에는 호격 조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예가 많지 않고, 특히 사람 이름은 끝소리가 거센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는 익숙하지 않은 발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학 작품 속에서도 사물을 의인화하여 부를 때 ‘명사+ 호격 조사’의 발음이 등장하기도 한다. ‘풀밭, 풀꽃’ 등을 의인화하여 부른다고 했을 때 교사가 이를 표준 발음인 ‘풀밭애[풀바타], 풀꽃애[풀꼬차]’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웃거나 어색하게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 어색함은 현실 발음에서 거의 쓰지 않고 작품에서만 실현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표준 발음이 작품 속에서 이 어휘가 지니는 고유한 맛과 느낌을 제대로 보여 주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명사+ 호격 조사’의 발음은 이전 표준 발음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없었던 예이지만 현실 언어에서 그 쓰임새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표준 발음을 예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 발음을 존중하여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듯하다.

앞선 겹받침의 탈락은 의사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명사+ 호격 조사’의 발음은 훨씬 더 의사소통을 어색하게 만들며, 특히 문학 작품 속에서 ‘명사+ 호격 조사’를 발음할 때는 어휘가 갖는 맛과 느낌 그리고 문맥적인 의미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표준 발음의 허용이라는 유연한 자세가 더 요구된다.

5. 음의 길이

국어의 발음 교육에서 어려운 영역 중 하나가 장단음 문제이다. 현대 한국어의 방언을 고려하면 크게 음의 길이로 뜻이 구별되는 지역(음장 방언)과 음의 높낮이로 뜻이 구별되는 지역(성조 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표준 발음법>에서는 음의 길이만 인정하고 음의 높낮이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실 발음에서는 음의 길이로 단어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은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상도나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는 음의 높낮이가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의 길이를 지도하는 것은 방언의 특성과 현실 발음을 고려하지 않은, 거의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진다. 이런 지역의 학습자에게 음의 길이에 대해 지도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며, 지도한다고 해도 학습자에게는 단순 암기식 학습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암기한다고 해도 휘발성이 있어서 학습자는 금방 잊게 되므로 발음 교육에 의미를 두기도 어렵다.

이 점은 음의 길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준 발음법>의 규정과는 달리 현실 발음에서는 음의 길이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 길이의

‘니, 귀’가 단모음으로도,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실제 언어 현실에서는 일부 방언권의 노년층 화자에게서만 단모음 ‘니, 귀’가 발음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이러한 언어 현실로 ‘니, 귀’에 대한 발음 교육을 받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발음을 지도하는 교사들조차도 단모음 ‘니, 귀’를 들어 본 적이 없거나, 발음해 본 적이 없어서 단모음 ‘니, 귀’의 발음을 어려워한다. 따라서 표준 발음에서 ‘니, 귀’를 단모음이나 이중 모음으로 모두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중 모음으로만 인정해도 될 듯하다.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니, 귀’의 구체적인 음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표준 발음을 정확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귀’를 보자. 서울말에서 ‘귀’는 단모음 [i]로 발음되기도 하지만 이중 모음 [wi]와 [ɥi]로 발음되기도 한다. 이희승(1955)에서는 단모음 [i]와 이중 모음 [ɥi]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들이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이현복(1985)에서는 ‘늪, 뒤, 귀, 쉬, 쥐, 휘다’와 같이 자음에 후행하는 ‘귀’는 [ɥi]로 발음되고, ‘위, 위장’과 같이 어두 음절의 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귀’가 [wi]로 발음되며, ‘들쥐, 날뛰다, 따귀’에서는 드물게 [i]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동일한 서울말에 대해서도 ‘귀’는 음운론적인 환경에 따라서 단모음 외에도 이중 모음 [ɥi] 또는 [wi]로 발음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개별 방언인 충청 방언에서는 ‘귀’가 하향 이중 모음 [uy]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귀’는 국어에서 [ü], [wi], [ɥi], [uy]의 네 가지 음가를 가진다.

이렇게 다양한 음가를 가짐에도 <표준 발음법>에서는 ‘귀’가 단모음 또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따라서 ‘귀’의 표준 발음을 명시하되 첫째, <표준 발음법>에서 음성형을 정확히 명시하는

방안이 있고 둘째, <표준 발음법>에서는 ‘귀’가 이중 모음으로 발음된다는 점만 명시하고, ‘표준 발음 사전’에서 ‘귀’의 음성형 중 [wi], [ɥil, [uy]’ 등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정밀하게 명시하는 방안이 있다.

7. 나오며

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발음 교육이 국어 교육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발음 교육의 현장은 끊이지 않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 이유는 드러난 표기와 표준 발음,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현실 발음의 괴리 때문이다.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이 반영된 표준 발음이 현실 발음과 동떨어져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규정이 현실 발음을 오히려 규제하고 엄매게 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이 둘의 관계가 아주 멀리 있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겹받침의 발음, ‘명사+ 호격 조사’의 발음, 음의 길이, 단모음 ‘ㄱ, ㄴ’ 발음의 문제는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서로 먼 곳에 자리잡은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 발음법>의 체제를 재정비하고 이를 보완해 줄 ‘표준 발음 사전’의 편찬이 필요하다. 아울러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복수 표준 발음을 허용하는 방안도 이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참고문헌

- 김봉국(2008), 음운론적 관점에서 본 [표준어 규정(제2부 표준 발음법)]의 문제점,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9권 1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김성규(2012),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 국립국어원.
- 이승왕(2007), 체언 어간말 격음 ㅌ, ㄷ의 실현양상과 지도방안,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복(1985), 모음 /위/의 소리값, 《말소리》 9권 10호, 대한음성학회.
- 이희승(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